

Contents



통계로 보는 국제물류

- 2019년 북미 지역 10대 물류창고 기업



물류정책 · 산업동향

1. 콜드체인 물류를 개선하기 위한 신기술 등장
2. 2020년, 공급사슬 리스크 및 기회 공존 예상
3. 머스크, 육상 운송사업 확장을 위해 '콜드체인'에 투자

명사 스피치

“여수광양항을 해상물류가 육상물류로 변환하는 대륙을 향한 Y-루트의 변곡점으로, 지능화된 산업지원형 융복합 항만으로 발전시켜 경쟁력 있는 글로벌 해운물류 중심기지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.”

차민식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
(2020. 1. 2. /월드마린센터 국제회의장에서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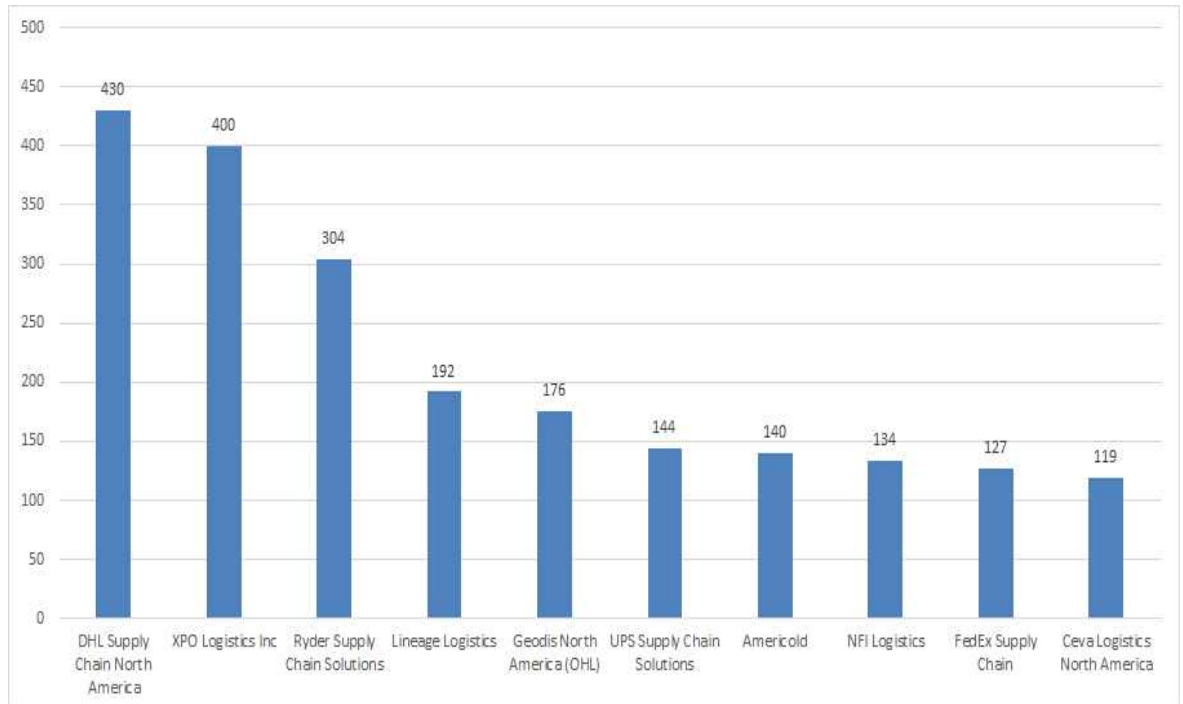


통계로 보는 국제물류

2019년 북미 지역 10대 물류창고 기업

북미 10대 물류창고 기업 (2019)

(단위 : 개)

자료 : www.statista.com

- 위 통계는 2019년 기준 북미에서의 메이저 물류 창고 기업 순위를 나타냄
- 2019년 북미 시장의 주요 물류창고 기업 순위는 DHL Supply Chain North America, XPO Logistics inc, Ryder Supply Chain Solutions 순임
- DHL은 1위를 차지하며, 북미 물류창고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
 - DHL의 물류창고는 430개이며, XPO는 400개를 운영하여 2위를 기록함
 - UPS는 144개로 6위를 차지하였으며, Fedex는 127개로 9위를 기록함

참고자료 : www.statista.com

류진아 연구원

051-797-4788, jaryu@kmi.re.kr



물류정책·산업동향

콜드체인 물류를 개선하기 위한 신기술 등장

- 콜드체인 물류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음
 - 식품이나 의약품 등 온도민감 화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, 콜드체인물류(Cold Chain Logistics)에 대한 투자·소비 역시 증가하고 있음
 - 북미에서는 콜드체인 네트워크의 미비로 인해 약 20%의 의약품이 폐기되거나 사용될 수 없고, 식품 변질 및 폐기는 이보다 더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



자료 : <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-oLJL082Leo> (검색일: 2020.01.13)

- IndraStra Global은 최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콜드체인 물류 개선방안과 기술을 소개함
 - IndraStra Global은 뉴욕 기반의 온라인 학술 소식지로 사업, 과학·기술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제공함
 - 이들은 콜드체인 물류 개선방안과 기술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했으며, 첫 번째는 원격 디지털 온도 조절 장치를 활용한 실시간 온도 측정 방안임
 - 두 번째는 추가적 예방조치 필요 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실시간 운송 추적 기술임
 - 세 번째는 보안성을 높이기 위한 비정상적 상품접촉 정보 전달 알람(Tamper-evident Alarm) 활용 방안임
 - 네 번째는 상품의 신선도를 장시간 유지하는 기술로, 신선도를 분석하는 이미지 시스템이나 수분 증발을 감소시키는 착색 기술 등이 있음
 - 다섯 번째는 인간과 상품의 직접적인 접점을 줄여 휴먼 에러를 감소하는 것으로, 화물 검수를 사물인터넷을 통해 수행하는 방안이 좋은 예시가 됨

■ 참고자료 : <https://www.indrastra.com/2020/01/5-Ways-IoT-Solutions-Can-Improve-Cold-Chain-Logistics-006-01-2020-0019.html> (검색일: 2020.01.13.)
<https://publons.com/journal/70570/indrastra-global> (검색일: 2020.01.13)

서정용 전문연구원

051-797-4676, jseo@kmi.re.kr

2020년, 공급사슬 리스크 및 기회 공존 예상

- 2020년에는 2019년과 마찬가지로 경제무역 성장 둔화, 정치적 격변 등 현상을 겪을 것이나 경기침체 가능성은 여전히 낮으며, 발생하더라도 경미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
- 2020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급사슬 리스크와 기회가 공존하는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됨
- 첫째, 무역분쟁 확대 리스크
 -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 문제로 인해 미중 무역전쟁의 조속한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
 - 비록 양국이 부과하는 관세는 세계 무역의 3%(5,500억달러)에 불과하지만 가격 상승, 신규 공급망 모색을 비롯하여 가치사슬과 무역흐름에 미치는 영향력은 결코 사소하지 않음
 - 또한 무역 전쟁이 다른 국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, 이는 무역성장을 보다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됨
 - 유럽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통과된다면 EU 기업들, 특히 독일 자동차 부문은 심각한 충격을 받게 될 것임
- 둘째, 정책 실수 리스크
 - 만약 주요국 정부가 정책적 실수를 저지른다면 취약한 경제는 더 큰 불안을 겪게 될 것임
 - 2019년 12월 브렉시트 법안이 영국 하원을 통과하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었으나 기업들이 체감하는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아 고정 투자를 회피하고 있으며, 동시에 노딜(No Deal) 브렉시트 가능성도 상존하여 유럽 전역의 공급망에 혼란을 줄 것으로 예상됨
- 셋째, 기업파산 증가 리스크
 - 2019년은 10년 만에 선진국 파산기업이 처음으로 증가한 해로, 미국의 경우 가장 높은 파산율(4.2%)을 보였으며 2020년에는 3.9%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 - 사업 투자 및 외부 수요 감소, 수입 및 인건비 상승, 그리고 높은 수준의 기업 부채로 인해 기업 파산이 증가했으며, 파산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철강, 자동차, 항공기, 소매 및 농업 등 분야임
 - 기업 파산은 거래 파트너의 공급망을 혼란시키거나 파괴할 수 있음
- 2020년 위기 속 기회
 - 상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최근 캐나다, 멕시코 및 미국이 체결한 무역협정으로 새로운 사업 기회가 창출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
 - 또한 무역전쟁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는 지속 성장이 예상되며, 인도 역시 평균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높은 사업수요 기반을 조성할 것임
 - 마지막으로 낮은 실업률로 인해 북미와 유럽의 가계 소비가 높아지면서 당분간 소비자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임

■ 참고자료 : <https://www.scmr.com/> 2019.12.30.

김은우 전문연구원

051-797-4680, hisgrace@kmi.re.kr

머스크, 육상 운송사업 확장을 위해 '콜드체인'에 투자

- 머스크는 기존 해상운송 사업에서 내실을 강화하는 한편, 육상운송 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
 - 머스크는 2016년 석유·가스 사업을 포함한 새로운 전략을 발표한 이후 '시장 점유율'보다 컨테이너 및 물류 사업에서 '수익성'과 '비용 절감'에 집중해옴
 - 2018년, 머스크의 해상 운송 사업은 주요 수익의 약 80%를 차지하고 있으나, 비해상사업 (non-Ocean business)분야인 터미널 운영과 육상운송 사업이 미래 수익의 더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함
- 머스크의 육상운송 사업 비중은 타 선사들과 비교했을 때, 적은 편이나 육상운송 사업 확장시 고객사인 대형 육상운송 업체들과 사업 영역이 겹칠 우려가 있음
 - 머스크의 터미널 부문 자회사인 APM터미널의 CEO는 머스크가 타선사보다 육상운송 사업 비중이 작다고 언급함
 - 머스크는 선적되는 컨테이너의 20% 정도를 취급하고 있으며, 25% 정도의 컨테이너를 항만과 창고 또는 유통센터로 육상 운송하고 있음
- 머스크는 화물을 운송하는 자사 고객과의 경쟁을 피하고 육상운송 사업의 확장을 위해 저온보관 시설과 디지털 솔루션 등 프리미엄 서비스에 주력할 계획임
 - APM터미널 측은 고객사들인 대형 운송회사들의 핵심 사업에 위협이 되지 않는 '콜드 체인'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힘
 - 또한, 파인애플, 바나나 등을 주로 수출하는 코스타리카와 카리브해에 인접한 머스크 컨테이너 터미널과의 연계 등을 언급하면서 부패하기 쉬운 화물을 신선하게 보관·수송하는 콜드체인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함
 - 머스크는 전통적인 화물 운송사업이 아닌 저온보관 시설과 디지털 솔루션 등에 집중하면서 DHL Logistics, Kuehne & Nagel, DSV Panalpina, DB Schenker와 같은 자사의 고객사들과의 경쟁을 피할 계획임

■ 참고자료 : www.channelnewsasia.com/, 2020.1.14.

신정훈 연구원

051-797-4695, jh.gary.shin@kmi.re.kr